



전주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서 소방 교육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화재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단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소방 교육을 진행했다.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초기 대처 능력을 익히고,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이 초기대응에 원활히 나설 수 있도록 완소소방서와 연계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 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완주시설공단, 대자인병원과 건강 증진 '맞손'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과 고려대학교의료원 교류협력 대자인병원(이사장 이병관)이 지난 23일 대자인 병원에서 공단 임직원 및 직계가족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 임직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진료 및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원주=염재복 기자



임실소방서, 하반기 수난사고 합동 구조훈련

임실소방서(서장 남우식)는 지난 24일 여름철 물놀이객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수난사고 합동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임실소방서 구조대, 신덕·강진지역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실제 수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수난구조 안전관리 △익수자 기초 응급처치 및 생리 특성 이해 △잠수장비 사용법·수중 신호법·간판표 사용법 △익수자 수색 및 인명구조 훈련 △한국의수자원공사 보유 장비를 활용한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임실=전홍영 기자

진안경찰, 경우회 회원들과 소통 간담회

진안경찰서(서장 신은영)는 지난 22일 관내 식당에서 선·후배 경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치안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경우회(진안재향영우회) 회원들과 '소통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안경찰서장과 각 과장을 비롯해 경우회(진안재향영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지역 치안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최근 치안 이슈와 지역 범죄 예방책,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사회 발전·봉사활동 공로 인정

백영남 장수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농식품부 장관 표창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농가주부모임연합회 창립30주년 기념식에서 지역사회발전 및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백영남 연합회장(장수군농가주부모임연합회)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백영남 연합회장이 농가주부모임을 이끌며 농촌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 농촌 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으며, 그동안 지역 내 대표적인 여성 봉사단체로서 깨끗한 농촌민들기 선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환경정비 및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특히 교량의 조항원과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온기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는 등 장계농협농주부의 땀방울과 따뜻한 봉사의 결실이 되어 마침내 오늘의 영광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백영남 연합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농가주부모임 창립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이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묵묵히 현장에서 땀흘리며 봉사에 온 장계농협 농가주부모임 모든 회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공을 회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앞으로도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농가



주부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점용 조합장은 "농가주부모임 창립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장관표창 수상 하신 백영남연합회장님께 온 마을을 담아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도 늘 숭선수범하며 농협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따뜻한 교량 역할을 해주신 연합회장님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윽고 "혼자라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장계농협 역시 농가주부모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에 전하는 따뜻한 온기나눔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기자

전북대 의대 학생회, 전북대병원에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교 축제 수익금을 모아 전북대학교병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미래 의료인으로서 생명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교 축제 기간 운영한 일일호프 수익금 150만원을 병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금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박성주 교육인재개발실장과 강경표 전북대 의과대학 학장,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박주형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학생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기부금은 의과대학 학생회가 축제 기간 자발적으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학생회는 어린이병원 소아환자의 치료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에 달라며 지정 기탁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했



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학생회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미래 의료인으로서 생명존중과 사회적 책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고창어린이합창단,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 향한 첫걸음

전북대회 대상 수상... 전국 무대 대비 첫 연습

고창소방서는 고창어린이합창단이 지난 24일 첫 연습을 시작하며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창어린이합창단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초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북 대표 자격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고창초등학교, 성내초등학교, 신희초등학교 학생 총 27명의 어린이가 합창단원으로 참가한다. 이날 첫 연습에서는 지도교사의 지휘에 맞춰 발성과 화음, 무대 동선 등을 익히며 전국 무대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화재예방과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소방서는 전국대회 전까지 체계적인 연습과 지원을 통해 합창단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협동심



과 자신감을 기르고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주형 서장은 "전북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고창어린이합창단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아이들이 그동안의 연습 성과를 마음껏 발휘하고, 무엇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소방서는 어린이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교육과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사교마을, 영농폐기물 수거 '전북 최우수' ... 장관상 수상

정읍시 산내면 사교마을이 2026년 전북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에서 참가 단체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참가 단체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용기류 수거 실적 70점, 이물질 저감 노력과 불법투기 방지·환경정화 활동 등 수거 노력도 30점, 가정 10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받았다.

사교마을은 꾸준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주민 주도의 마을 환경정화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4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에서 열렸으며, 사교마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과 은누리상품권 100만원이 수여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사교마을 주민들이 꾸준히 실천해 온 영농폐기물 분리배출과 환경정화 활동의 성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수거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제일로타리클럽 주관 사랑의 삼계탕 나눔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박광재)이 주관하고 아중요양병원과 거성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후원해 지난 24일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가 열렸다.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삼계탕 600인분을 직접 만들어 식사를 대접하였고 옥수수 및 토마토를 간식으로 제공했다.

박광재 회장은 "비록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작은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힘이 전달됐으면 한다"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 2026 사회적경제 소통데이 2회차 행사

정읍시가 지난 23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28곳과 경영·판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하반기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시 지역협력센터 교육장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대표·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적경제 소통데이' 2회차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공나뭇물을 생산하는 마을기업 '씩씩한공나뭇물'과 참기름·들기름을 생산하는 '대흥리마을', 모싯잎 가공기업 '내장산숯타자연구(유)', 천연염색 제품을 만드는 '다정인', 방과 후 돌봄과 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 16곳과 사회적기업 7곳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영상의 애로사항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읍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하반기 사업과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자봉센터, 여름나기 꾸러미 전달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지난 22일과 24일 목가노인과 조순7정, 한부모7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160여대를 대상으로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한 사업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80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꾸러미를 직접 제작했다. 꾸러미에는 여름 이불을 비롯해 사골육수, 라면, 모기기피제, 파스, 가방 등 폭염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담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나서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형식)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과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군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7월 중 협의회를 통해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함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활용 모델 등 핵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관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8월에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